

## 프레게의 반심리주의 연구 -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

강규호\*\*

### I. 서론

‘심리주의(Psychologism)’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심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심리적 기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거나 심리학의 용어들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철학을 심리학과 동일시하거나 심리학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학문적 사조를 가리킨다.<sup>1)</sup> 이 용어가 철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01046615)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1) ‘심리주의’는 1870년 에르트만(B. Erdmann)이 베네케(F. E. Beneke)의 철학적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당시 베네케는 영국 경험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심리 상태를 고찰하는 내성법(introspection)만이 철학자가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이라 여겼으며, 심리학이 모든 학문의 근본학이라 믿었다. 비록 에르트만이 베네케를 심리주의자라고 비난했음지라도, 프레게는 에르트만의 논리학을 대표적인 심리주의자의 심리학적 논리학이라 비판했는데, 이는 당시 심리주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를 가늠해보게 한다. Pelletier, F.

학자들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sup>2)</sup> 인공지능 중심의 인지과학적 패러다임이 유행하고 있는 현대 철학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패러다임은 19세기 후반 논리학과 심리학을 혼동했던 독일 심리주의자들의 자연주의적 경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명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자연화된 인식론에 관한 콰인의 이상으로도 일부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철학자들의 통상적인 견해에 따르면, 20세기 초 심리주의는 프레게와 후설에 의해 결정적으로 논박되어 자취를 감추었으며, 심리주의를 포괄하는 철학적 자연주의의 시대 또한 서서히 막을 내렸다.<sup>3)</sup> 프레게는 반심리주의(Anti-psychologism)를 주창한 최초의 철학자로서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접화된 고전적 심리주의 논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선점했다. 그는 당시 독일의 수학자들과 논리학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의 심리주의 비판은 이후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카르납과 포퍼로부터 켈라스까지 수많은 분석철학자들에게 계승되었다. 사실 심리주의는 분석철학에서 아주 예민한 주제로, 분석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논리학을 심리학과 단절시키는 원리를 따르며 지금까지도 반심리주의적인 태도로 철학의 하위 분과들로부터

J., Elio, R & Hanson, P. (2008). Is Logic All in Our Heads? From Naturalism To Psychologism. *Studia Logica*. 88(1). 7-8; Kusch, M. (2020). Psycholog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sychologism>

- 2) 최근 한국에서 ‘논리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닐 부부의 『논리학 발달사』나 콰인의 『논리철학』에 ‘심리주의’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Brockhaus, R. R. (1991). Realism and Psychologism in 19th Century Logic.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1(3), 494, n.3; 프레게가 일생토록 반심리주의 이념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게 철학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서라 평가받는 더밋의 『프레게: 언어 철학』 색인에도 ‘심리주의’나 ‘반심리주의’는 등장하지 않으며, 기존의 프레게 연구자들도 그의 반심리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진술하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 3) 쿠쉬는 심리주의를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조라고 여기며, 프레게의 반심리주의를 20세기 반 자연주의 운동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연과학이 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연주의적 발상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며, 철학적 자연주의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믿음을 공유했다. 그런데 최근 부활한 현대 심리주의 논쟁은 대체로 철학적 자연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Kusch, M. (2020). Psycholog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sychologism>.

심리주의를 몰아내고 점진적으로 철학을 심리학이라는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왔다. 이렇게 볼 때 프레게의 반심리주의는 철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며, 20세기 분석철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sup>4)</sup>

본고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리주의 논쟁의 한 축인 반심리주의의 핵심적 이념을 드러내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반심리주의의 주장자인 프레게의 심리주의 비판과 관련하여 인식론적으로 개인의 고유한 의식적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한 심리주의가 왜 유아론(Solipsism)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심리주의자의 주장처럼 논리학을 심리학으로 환원할 경우 왜 학문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프레게의 심리주의 비판의 핵심에 사고내용(*der Gedanke*)과 관념(*die Vorstellung*) 간의 내용적 구분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유행한 논리적 심리주의(Logical Psychologism)가 무엇이었으며, 프레게가 그것의 철학적 기원을 무엇이라고 여겼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프레게가 논리적 심리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사고내용과 관념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러한 내용의 구분이 철학자에게 중요하다고 여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프레게의 반심리주의가 겨냥했던 대표적인 표적들이 지녔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논리적 심리주의가 어떤 철학적 귀결들을 가지는지를 밝힐 것이다.

---

4) Kusch, M. (1995). *Psycholog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4; Godden, D. M. & Griffin, N. (2009). *Psychologism and the Development of Russell's Account of Propositions*. *History and Philosophy of Logic*. 30(2), 171.

## II. 논리적 심리주의의 철학적 기원

1831년, 헤겔의 죽음 이후 독일에서는 그의 관념론을 형이상학적 사변의 전형이라 비난하면서 철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철학은 더 이상 자연과학에 대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의 일부 철학자들은 철학적 분석과 같은 선형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경험과학의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 철학을 탐구하고자 하는 철학적 자연주의를 유행시켰다. 그들은 지식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 과학자들의 실천 속에 구현되어 있는 방법이라 믿었으며, 철학자는 경험과학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과학으로부터 탐구 절차의 충실성과 정확성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철학적 문제들을 과학적 관점에서 처리가능한 문제들, 다시 말해 과학의 규범과 성과에 의거하여 자연주의적 전환에서도 살아남는 문제들로 제한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 또한 과학적 방법으로 구해진 경험적 증거들에 의거해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1870년대에 이르러 독일의 자연주의자들은 철학과 과학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sup>5)</sup>

19세기 후반, 철학적 자연주의 사조는 논리학에도 침투했다. 당시 신생과 학이던 생리심리학과 실험심리학을 출범시킨 철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은 논리학에 담긴 심리학적 함축들을 찾아내고자 논리학에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논리학이 우리의 심적인 사고행위를 주로 탐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으며, 이에 따라 논리학을 새로운 경험과학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심리학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논리적 심리주의’라 부를 수 있다. 당시 독일의 논리학자들 또한 논리학의 탐구 대상인 개념, 판단, 추론을 심리적 존재자들로 간주하고 개인의 심적 작용을 경험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인간의 심적 과정에 관한 경험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논리적 진리의 필연성까지

5)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4, 17, 36.

설명하고자 했다. 결국 그들은 논리학의 전통적 개념을 거부하고 논리학의 본성을 새로운 심리학의 개념들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당시 논리학자들은 자연주의 이념을 간직했던 영국 경험론의 전통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영국 경험론의 일반적 정서인 추상적 존재자를 향한 혐오와 경험적 인식에 대한 선호를 그대로 계승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전통적 경험론자의 사고방식과 매우 유사했으며, 그들이 주로 연구한 대상 또한 영국 경험론자들이 ‘감각’, ‘인상’, ‘관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다.<sup>6)</sup> 그들은 인식 주체가 자신에게 내재된 실제적인 것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성의 원리를 수용했으며, 우리에게 가능한 인식은 심적인 경험뿐이므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개별적인 심적 경험의 산물인 주관적 관념뿐이라고 믿게 되었다.<sup>7)</sup> 나아가 그들은 논리적 진술의 의미가 관념들의 복합물일 뿐이라고 믿었으며, 영국 경험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형식 논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논리학의 대상을 내성법을 통해 심리학적으로 해명하거나 형식 논리를 무시하는 논리적 심리주의의 일반적 경향은 우선 로크의 감각주의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기원은 근본적으로 유일한 인식의 대상이 인식 주체의 의식적 내용이라는 데카르트의 확신과 더불어 논리학에 경험과학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던 그의 근대적 개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데카르트는 당시 과학의 혁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논리학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실천과학이어야 한다고 믿었다.<sup>9)</sup> 그리고 그는 형식 논리는 단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식들을 단순히 나열하여 확실성을 이행하는 기법이기에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고 무가치하다고

6) Notturmo, M. A. (1989). *Perspectives on Psychologism*. Leiden: E. J. Brill, 78.

7) Porta, M. A. G. (2017). *The Critique of Psychologism and the Conception of Subjectivity in Frege*. CR: *The New Centennial Review*. 17(2), 137.

8) Brockhaus, R. R. (1991). *Realism and Psychologism in 19th Century Logic*.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1(3), 495-498.

9) Adamson, R. (2017). *A Short History of Logic*. ed. W. R. Sorley, *Forgotten Books*, 85.

여겼다. 대신 그는 이성의 자연적 빛과 명석판명한 관념의 소유라는 내성의 원리들이 새로운 지식의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믿었다.<sup>10)</sup> 한편 그는 ‘관념’을 근대 철학에 재도입하며 관념을 형상적 개념에서 의식적 내용으로 변형시켰으며, 이후 로크는 이런 식의 ‘관념’의 용법을 정착시키게 된다.<sup>11)</sup>

로크는 인식의 심리적 기원에 관한 일반적 원리에 기초한 심리학적인 지식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학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감각 인상의 소유와 감각적 사실의 인식을 동일시하는 방법을 통해 감각 인상들로부터 논리적 정합성을 도출하는데, 비록 체계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당시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방법처럼 여겨졌다. 그에게 있어 모든 복합적 사실은 단순한 감각적 사실들 혹은 원초적인 감각 인상들의 기계적 복합물이고 판단과 추론은 이러한 감각적 자료들로 수행되는 일종의 반성적 행위였으므로 그것의 산물인 논리적 내용은 인공적이고 부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sup>12)</sup> 따라서 로크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삼단논법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식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기법에 불과하며, 형식 논리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여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아가 그는 모든 관념이 우리의 심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우리가 증명을 수행하는 심적 과정들만 잘 관찰하면 우리의 사고를 논리 규칙들로 환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장 명료한 추론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론할 때 삼단논법적으로만 추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단논법을 구성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추론이 실제로 수행하

10) Pelletier, F. J., Elio, R & Hanson, P. (2008). Is Logic All in Our Heads? From Naturalism To Psychologism. *Studia Logica*. 88(1), 15.

11) Cottingham, J. (1993). *A Descartes Dictionary*. Oxford: Blackwell, 77; 데카르트는 ‘관념’이라는 용어를 애초부터 애매하고 부정확하게 사용했다. 그는 이 용어를 때로는 마음의 작용으로 때로는 그런 작용의 대상으로, 보다 심각하게는 그런 작용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사용했다. Baker, G. P. & Hacker, P. M. S. (1984). *Frege: Logical Excavation*. Oxford: Basil Blackwell, 47.

12) Adamson, R. (2017). *A Short History of Logic*. ed. W. R. Sorley. Forgotten Books, 93-94.

는 일들을 잘 주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명료하고 올바른 추론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엄밀한 형식 논리보다 더욱 근본적인 “타고난 순박한 논리(native rustic logic)”가 기존의 관념들로부터 새로운 관념들을 발생시켜 인류 공동의 지식을 증대시킬 것이라 선언했다.<sup>13)</sup> 이렇게 볼 때, 로크에게 있어 논리학은 일종의 경험과학으로서 자연법칙을 발견하듯 실제적인 사고법칙을 발견하는 일종의 심리 과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크 이후, 영국 경험론의 전통은 논리학에서 우리의 심적 능력이나 기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었으며, 내성법에 따라 우리의 추리 습관들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심리학적 논리학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비록 고전적 심리주의 논쟁이 주로 독일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밀의 논리학 개념이 논리적 심리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1843년 영국에서 출간된 밀의 『논리학 체계』는 경험심리학에 기초한 논리학의 최종적인 형태를 담고 있으며, 이후 이 책은 당대 독일의 논리학자들이 심리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심리주의적 태도를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밀은 모든 지식이 개별자에 대한 감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는 흄의 경험론적 원리를 적극 수용했으며 흄의 노선은 그에게서 논리적으로 완성되었다.<sup>15)</sup> 그는 우리의 지식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고찰하는 심리학의 방법을 통해 인식론을 정초하고자 했으며, 논리적 진리가 실제로는 심리적 사실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심리주의적 주장을 펼쳤다. 그에게 있어 지식 형성과 연관된 사실들은 심적 현상들과 그것들의 관계들이며, 지식은 증거구성력이라는 속성을 지닌다.<sup>16)</sup> 지식의 일반적 증거는 자연의 균일성 원리에 따

13) Locke, J. (1975).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P. H. Nidditch. Oxford: Clarendon Press, 670-679.

14)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6; Moran, D. (2000).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2.

15) Adamson, R. (2017). *A Short History of Logic*. ed. W. R. Sorley. Forgotten Books, 95-96.

라 심적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반복적인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은 친숙한 사례들로부터 점점 확장되어 심리법칙에 따라 심적 현상들을 균일하게 연결한 믿음들을 산출한다.<sup>17)</sup> 여기서 논리법칙은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도출되는 일종의 자연법칙인 심리법칙이 되며, 경험적 사실들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믿음들로 구성된 증명은 우리의 경험들이 제공되는 만큼의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밀에 따르면 논리학은 판단과 추리에 기여하는 심리적 작용들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우리가 추리할 때마다 발생하는 심적 과정들을 계속 분석하여 믿음과 증거 간의 일반적 관계를 해명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 과정을 올바르게 전개할 수 있도록 추리 기법들을 제공해야 하는 소임을 가진다.<sup>18)</sup> 따라서 논리학이 선형적이고 필연적인 진리를 구현한다는 것은 이성의 환영(幻境)일 뿐이며,<sup>19)</sup> 인간의 사고 일반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심리학만이 논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논리학은 심리학 이론의 정확성과 정합성에 의존해야 한다.<sup>20)</sup> 이렇게 볼 때 밀은 영국 경험론의 전통을 논리적으로 완성한 가장 확실한 논리적 심리주의자라 평가받을 만하다.<sup>21)</sup>

19세기 후반 독일의 논리학자들은 논리학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에 크게 공감했으며, 당시 밀의 논리학 개념은 분트, 에르트만, 지그바르트 등의 논리학 관련 저서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르트만의 『논리학』은 존재론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사고행위 자체와 사고법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sup>22)</sup> 한편 실험심리학을 발전시킨 분트는 1890년과

16) Mill, J. S. (2011). A System of Logic. <https://www.gutenberg.org/ebooks/35421>, 224.

17) Mill, J. S. (2011). *ibid*, 240.

18) Adamson, R. (2017). A Short History of Logic. ed. W. R. Sorley. Forgotten Books, 96-98.

19) Mill, J. S. (2011). A System of Logic. <https://www.gutenberg.org/ebooks/35421>, 218.

20) Mill, J. S. (1889). An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London: Longmans and Co, 461-462.

21) 밀이 보여준 이런 식의 논리적 심리주의는 강한 심리주의의 일례로 '유심론'이라 불릴 만하다. Godden, D. M. & Griffin, N. (2009). Psychologism and the Development of Russell's Account of Propositions. *History and Philosophy of Logic*. 30(2), 173.



1920년 사이 『논리학』을 여러 차례 출간했으며, 전통 논리학을 관념, 연합, 통각, 사실, 실체, 인과와 같은 심리학적 개념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재해석했다.<sup>23)</sup> 이처럼 당시 논리학자들은 논리학에 담긴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심리학적 함축들에 주목하며 논리학을 매우 느슨하게 해석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주관적 관념론이나 현상주의에 도달했다.<sup>24)</sup> 그들에게 있어 우리의 지식은 관념이나 심적 현상으로 구성되므로 모든 논리적인 것은 우리 각자의 내부 세계에 속하는 심리적 존재자들이었다. 즉 개념은 추상이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관념이었으며, 판단은 단순 관념들이 조합된 복합 관념, 그리고 추론은 이러한 복합 관념들의 이행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논리학의 탐구 대상이 개인의 의식적 내용이거나 심리적 행위라 여기게 되었으며, 논리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학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그들에게는 심리학이 개개인의 의식과 그것에 담긴 내용과 행위를 탐구하는 근본학이자 모든 학문을 포괄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최고 재판관이었다.<sup>25)</sup>

### III. 내용의 구분

프레게는 당대의 논리학자들이 모든 논리적인 것을 관념으로 취급하는 잘

- 
- 22) Porta, M. A. G. (2015). The Evolution of Frege's Critique of Psychologism and the Brentano School. *Filosofia Unisinos*. 16(3), 202.
- 23)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2; Daston, L. & Galison, P. (2007). *Objectivity*. New York: Zone Books, 264-265.
- 24) Kusch, M. (1995). *Psycholog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5; Sluga, H. D. (1980). *ibid*, 11-12; 에르트만의 논리학이 프레게가 관념론 개념을 가지게 된 궁극적 원천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논리학과 로크-데카르트식의 표상주의 혹은 버클리의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를 구분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Porta, M. A. G. (2015). The Evolution of Frege's Critique of Psychologism and the Brentano School. *Filosofia Unisinos*. 16(3), 202.
- 25) Frege, G. (1997). *The Frege Reader*. ed. M. Beaney, Oxford: Blackwell, 342; Aach, J. (1990). *Psychologism Reconsidered*. *Synthese*. 85(2), 317.

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배후에는 17세기 이후 이어져온 영국의 경험론 전통에 내재되어 있던, 그리고 당대의 신생 과학인 생리심리학이 수용한 주관적 관념론이 있다고 생각했다.<sup>26)</sup> 따라서 그는 논리학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신생 심리학의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였으며, 논리학과 관련해 모든 심리적 존재자의 주관성을 억압하고자 했다. 그리고 1879년 출간된 『개념표기법』을 통해 알려진 프레게의 새로운 논리학이 밀의 논리학을 계승한 당대의 심리학적 논리학이 영국 경험론의 인식론을 발전시키던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볼 때,<sup>27)</sup> 그의 반심리주의가 겨냥한 주된 표적은 모든 학문을 허구화하거나 심리학의 분과들로 전락시키는, 궁극적으로 논리적 심리주의가 초래하는 관념론적 인식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프레게가 논리적 심리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사실 논리학의 일반성과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관념의 사밀성(privacy)과 개별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볼 때 ‘관념’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논리학과 심리학을 심각할 정도로 혼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혼동은 논리학의 본성과 재제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잘못이다.<sup>29)</sup> 그러나 당시 논리학자들은 공유가능한 객관적인 내용과 우리 각자의 관념이 지닌 주관적 내용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든 것을

26) “사람들이 보다 좁은 의미의 사고행위와 관념화를, 그리고 내용의 부분(개념, 대상, 관계)과 우리가 소유한 관념을 적절하게 구분했다라면, 로크의 감각주의, 버클리의 관념론, 그리고 이러한 철학들과 결속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Frege, G. (1979). *Posthumous Writings*. tr. P. Long & R. White, Oxford: Blackwell, 100-105.

27) 가브리엘은 19세기에는 논리학과 인식론이 구분되는 분야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레게가 심리학의 침입으로부터 논리학을 보호하기 위해 논리학과 인식론을 구분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Schim, M. (1996). *Frege: Importance and Legacy*. New York: de Gruyter, 336.

28) “논리학에 대한 심리학적 취급은 사고내용이 관념과 같이 심리적인 무언가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견해는 반드시 관념론적 인식론을 초래한다.” Frege, G. (1979). 143; 관념론적 인식론은 인식 주체의 관념을 초월하는 외부의 실재나 존재자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식의 직접적 대상이 우리 각자의 관념뿐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주관적 관념론이라 할 수 있다.

29) Frege, G. (1960).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 J. L. Austin. Oxford: Blackwell, 37.

‘관념’이라 통칭할 수 있는 심리적 존재자들로 치부하며 논리학을 일종의 심리학으로 오해했다. 따라서 프레게는 사고내용의 철학을 ‘논리학’이라 칭하며,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객관적인 사고내용이라고 천명했다.<sup>30)</sup> 그는 이전 철학자들이 논리학의 객관적 내용에 대해 ‘관념’이나 ‘객관적 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점을 애석해하며, 우리가 논리학의 객관적 내용과 심리학의 주관적 내용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관념’의 사용 범위를 축소시켜 그것을 심리학의 대상이나 내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객관적인 학문들, 특히 논리학에서는 결코 ‘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sup>31)</sup> 그렇다면 그는 ‘관념’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에게 있어 ‘관념’은 개별 주체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의식의 내용, 가령 감각 인상과 직관, 심적 영상과 의지, 감정과 분위기, 성향과 소망, 상상이 만들어낸 심리적 사태들 모두를 통칭하는 순수 심리적인 용어이다.<sup>32)</sup> 여기서 관념은 개인의 내부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심리법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sup>33)</sup> 따라서 관념이 사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사적인 것이 학문적일 수 없기 때문에, 프레게는 학문들에서 ‘관념’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한 것이다.

프레게는 관념 자체가 지니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관념은 고정된 경계를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불명료하고 미결정적이다.<sup>34)</sup> 감각 인상의 흔적들이나 내외적 행위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일어나는

30) 프레게는 자신의 사고내용의 철학을 ‘논리학’이라 칭하며, 논리적 심리주의자들의 심리학적 논리학을 ‘논리학’이라 부르기를 거부했다. Aach, J. (1990). *Psychologism Reconsidered*. Synthese. 85(2), 319.

31) Frege, G. (1960). 37, n.1; Frege, G. (1984).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tr. M. Black. Oxford: Basil Blackwell, 135; Frege, G. (1997). 154, n.D; 사실 ‘관념’은 모든 철학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가 불확실하고 애매한 용어 중 하나이다.

32) Frege, G. (1979). 2-3; Frege, G. (1997). 334.

33) Frege, G. (1979). 131; Frege, G. (1997). 154.

34) Frege, G. (1979). 135.

관념의 이러한 미결정성은 분명 논리학의 대상이 가지는 고정성이나 결정성과 대립된다.<sup>35)</sup> 둘째, 관념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적이며, 관념의 위치에 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에 종속적이지 않다.<sup>36)</sup> 셋째, 관념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법칙에 따라 관념들을 연합할지라도 우리는 참인 무언가를 산출할 수 없다.<sup>37)</sup> 한편 프레게는 관념의 특징들을 관념과 담지자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하기도 한다. 첫째, 관념은 그것의 담지자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담지자에 존재-의존적이다.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감각 인상은 지각력을 가진 인식 주체가 없다면 불가능하며, 오직 그것을 소유한 담지자로 인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과 같은 관념이 그것의 소유자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sup>38)</sup> 둘째, 관념은 사적 소유만 가능하므로 공유불가능하다. 관념이 거주하는 우리의 내부 세계는 그것을 소유한 누군가를 전제하며 관념은 그의 정신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관념은 본질적으로 소유자의 고유한 의식적 내용이다. 누군가의 관념은 또 다른 누군가의 관념일 수 없고 이것들은 서로 다른 심적 과정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자와만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타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념은 소유자의 의식에만 내재하는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동일한 관념을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sup>39)</sup> 셋째, 관념은 인식론적으로 사적이기 때문에 전달불가능하다. 관념은 오직 소유자만이 그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 다른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본래 순수하게 직관적이거나 심리적인 무언가는 전달불가능하다.<sup>40)</sup>

35) Frege, G. (1960). x vii- x vii; Frege, G. (1997). 154.

36) Frege, G. (1960). 72.

37) Frege, G. (1979). 126, 131, 174.

38) Frege, G. (1997). 334-335, 339.

39) Frege, G. (1960). x ix, 72; Frege, G. (1979). 3, 129-130; Frege, G. (1997). 154-155, 334-336, 340.

사실 프레게도 초기에는 종종 ‘관념’이라는 용어를 개념에 대해 사용하거나 사고내용에 대해 ‘관념복합체’와 같은 다소 복잡한 용어를 사용했으나,<sup>41)</sup> 이후 ‘객관적 관념’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리적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념’을 전적으로 심리학에 할당하고 대신 논리학에서는 ‘사고내용’이라는 새로운 전문 용어를 도입해 사용했다.<sup>42)</sup> 사고내용이란 기본적으로 진리치 물음을 유발하는 서술문이나 주장문의 뜻이며, 논리학의 가장 일반적인 탐구 대상이자 논리적 추론의 구성요소이다.<sup>43)</sup> 사고내용은 심리학의 탐구 대상인 관념도, 관념들의 결합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관념과 상반된 특징들을 지닌다.<sup>44)</sup> 그것은, 관념과 달리, 변화무쌍하지 않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으며, 항상 동일하게 참이거나 거짓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이지 않다.<sup>45)</sup> 한편 사고내용은 우리와 관련해 관념과는 전혀 다른 관계적 속성들을 지닌다. 첫째, 사고내용은, 담지자에 의존적인 관념과 달리, 그것을 파악하여 참이라 승인하는 판단 주체가 없더라도 독립적으로 존속가능하다. 모든 영원한 진리, 즉 참인 사고내용은 우리의 사고행위나 심리적 구성에 독립적으로 참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며, 가령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자연법칙이 그러하듯,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시점부터 참인 것도, 참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참인 것도

40) Frege, G. (1960). 35.

41) Frege, G. (1972). *Conceptual Notation and related articles*. tr. T. W. Bynum. OUP, 111.

42) Frege, G. (1980). *Philosophical and Mathematical Correspondence*. tr. H. Kaal. Oxford: Blackwell, 184, n.15; Frege, G. (1979). 127, 135.

43) Frege, G. (1979). 126; 프레게는 문장의 내용으로부터 관념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참이라 수용되거나 거짓으로 거부되는 부분을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내용’이라 불렀으며, 그 사례들로 자연법칙, 수학법칙, 역사적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Frege, G. (1979). 131, 197; Frege, G. (1997). 328; 프레게가 본격적으로 약정적 정의를 제시하며 사고내용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1892년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이후이며, 이 용어는 그의 논리학, 의미론, 존재론, 수학적철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9-10.

44) Frege, G. (1979). 197, 206; Frege, G. (1980). 67.

45) Frege, G. (1979). 135, 148.

아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은 판단 주체로부터 독립적이며 객관적이다.<sup>46)</sup> 둘째, 사고내용은, 사적 소유의 대상인 관념과 달리, 이성적 존재자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무언가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판단의 내용이자 논증의 구성요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내용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다.<sup>47)</sup> 셋째, 사고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그것은, 인식론적으로 사적인 관념과 달리, 인식론적으로 공적이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이나 소통이 가능하며, 이러한 소통가능성으로 인해 학문은 존립할 수 있다.<sup>48)</sup>

#### IV.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

프레게의 논리적 심리주의 비판은 그의 학문적 이력 내내 전개되었으며, 주로 「논리학」(1879~1891), 『산수의 근본법칙』(1893)의 서문과 「후설의 『산수의 철학』에 관한 비평」(1894), 그리고 「논리학」(1897)과 「사고내용」(1918)에 포함되어 있다. 프레게는 이 저작들에서 에르트만과 후설을 대표적 인 심리주의자들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에르트만이 『논리학』에서 제시한 심리학적 논리학 개념을 비판하며 당대의 철학자들이 왜 주관적 관념론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으며, 후설의 『산수의 철학』을 읽은 후 심리학이 논리학을 침범할 경우 논리학이 얼마나 황폐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심리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다고 토로했다.<sup>49)</sup>

우선 프레게는 에르트만이 매우 부적절한 객관성 개념을 가지고 있어 관념과 그것의 대상조차 잘못 구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르트만은 모든 논리

46) Frege, G. (1960). 35, 72; Frege, G. (1979). 2, 7, 127, 133, 174; Frege, G. (1997). 337, 342.

47) Frege, G. (1960). 35; Frege, G. (1984). 198.

48) Frege, G. (1997). 206, 335-336.

49) Frege, G. (1984). 208-209; Frege, G. (2016). The Basic Laws of Arithmetic. tr. P. A. Ebert, M. Rossberg & C. W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XIX.

적인 것이 판단 주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관념적 본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여겼으며, 이에 따라 실재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을 뒤섞어 버리거나 인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적 관념으로 간주했다. 그에게는 관념이 최상위의 유이기 때문에 판단의 주어와 술어는 모두 관념일 수밖에 없었으며, 모든 논리적 존재자가 심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객관적인 인식 대상이 배제되었다.<sup>50)</sup> 한편 후설은 모든 논리적 관계항을 심리적 작용을 통해 결합되는 의식적 사태들로 간주하거나 대상과 개념,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다른 종류의 관념들이라 주장하며 논리적 심리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특히 그의 논리학 개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의 심리적 부주의가 가장 강력한 논리력이 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대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속성들이 사라져 대상은 소멸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개념의 기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대상의 속성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우리는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결국 그는 대상이나 개념을 우리의 주의력이나 주의 정도에 따라 변하거나 획득될 수 있는 관념들이라 여겼다. 한편 그는 우리 각자의 관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정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에르트만이 그랬듯 관념을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다소 객관적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논리학과 심리학의 경계를 흐렸다.<sup>51)</sup>

## 1.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구분

프레게는 논리적 심리주의를 수많은 논리적 혼동을 야기하는 극단적인 경험론적 사조라고 믿었으며, 모든 논리적인 것을 관념화하는 그것의 오류를 철학자들이 자신의 논리주의 기획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

50) Frege, G. (1997). 206, n.18; Frege, G. (2016). XX-XXI.

51) Frege, G. (1984). 195-200.

로 간주했다.<sup>52)</sup> 따라서 그는 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철저한 구분이 지닌 중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논리학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심리학은 주로 감각이나 관념이 속해 있는 주관적 영역에 개입하는 반면, 논리학은 사고내용, 진리, 의미와 관련된 객관적 영역에 관여하는데, 여기서 논리학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개인 특유의 주관적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sup>53)</sup>

프레게가 볼 때, 당시 논리적 심리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관념으로 치부한 탓에 논리적으로 무가치한 심리적인 구분들에 몰두한 반면, 정작 논리적으로 중요한 구분들은 소홀히 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sup>54)</sup> 그런데 이렇게 대상과 개념을 모두 관념으로 치부할 경우, 논리학의 엄밀한 증명을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대상의 포섭 여부를 밝혀 개념들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구분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논리적 구분들이 대상과 개념의 구분, 일계 개념과 이계 개념의 구분, 그리고 개념의 특징과 성질에 대한 구분임을 알지 못하게 된다.<sup>55)</sup> 이처럼 논리적으로 중요한 구분들을 무시할 경우, 논리적 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조차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분명 논리적 심리주의의 잘못된 귀결이며, 논리학이 심리학에 오염된 명백한 증거이다.<sup>56)</sup> 따라서 프레게는 논리적 심리주의가 논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논리학의 근본 원리와 본성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논리학에 침투해있는 모든 심리학적 구분들을 제거하고, 즉각 논리적인 것을 “고

52) Picardi, E. (1998). Sigwart, Husserl and Frege, on Truth and Logic, or Is Psychologism Still a Threat?.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5(2), 164.

53) Frege, G. (1960). xxii; Frege, G. (1979). 3.

54) Frege, G. (2016). XXV.

55) Frege, G. (1960). 87; Frege, G. (1980). 60, 64-65; 후설은 대상과 개념의 포섭 관계에 있는 개념들만으로 개념의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개념들을 간과했으며 개념의 특징과 성질의 차이도 무시했다. Kusch, M. (1995). *Psycholog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6, 38.

56) Frege, G. (2016). XIV, XXIV; Frege, G. (1980). 363-364.



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7)</sup>

또한 후설을 비롯해 논리적 심리주의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조차 그 단어에 상응하는 관념의 기원과 조합을 기술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주장처럼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각자의 주관적 관념이라면 학문적 담론에서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관념인지, 심지어 그의 언제쯤의 관념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 문장의 의미가 프레게의 주장처럼 객관적 사고내용이라면 그것은 인식 주체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sup>58)</sup> 요컨대 사고내용의 동일성 조건은 관념의 동일성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객관적인 사고내용이라면 판단 주체의 동일성에 대해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사고내용의 진리조건이 사고 주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비록 사고내용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가 그것을 사고하는 누군가를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사고 주체의 의식적 내용에 속하지 않는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프레게에 따르면 우리는 문장을 통해 자신과 독립적인 사고내용을 주장하며, 자신이 허구의 영역이 아닌 객관적인 진리의 영역에 참여한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주관적 관념론에 따라 사고내용을 관념으로 전환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학문적 소통에 참여하는 대화자는 문장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관념을 지시한다고 믿게 되지만, 사실 관념 자체가 지시불가능하며 이런 일은 학문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sup>59)</sup>

프레게는 자신의 논리학이 ‘참’이라는 용어에 가장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는 데서 시작하여 즉각 진리치 물음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내용을 도입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sup>60)</sup> 만일 관념이 에르트만의 주장처럼 유일한 논리적 존재자라면,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관념이라면, 역사적 사실과 같은 사고내용을 기술하는 문장은 소설이나 신화 속의 문장처럼 참도 거짓도 아니게 된다. 이

57) Frege, G. (1979). 5, 142.

58) Frege, G. (1979). 4. 129-130, 134; Frege, G. (1980). 79; Frege, G. (1984). 135, 197.

59) Frege, G. (1979). 131, 232; Frege, G. (1997). 341-342.

60) Frege, G. (1979). 175; Frege, G. (1997). 362.

는 논리적 내용의 객관성을 포기하게 만들고, 참과 거짓을 중시하는 논리적 활동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61)</sup> 통상적으로 관념론자들은 관념이 실재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재와 일치할 경우 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관념이 이리저리한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 참인지, 아니면 관념이 실재와 일치 관계에 있음이 참인지 묻게 되며, 여기서의 물음은 문장의 진리치가 아닌 관념의 진리치를 묻는 부적절한 물음으로 변질된다. 사실 ‘참’이라는 용어는 대응이나 일치 여부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우리가 두 사물이 완전하게 대응할 때 그것들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관념은 실재와 근본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일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관념과 실재의 대응 관계에 대해 진리치 여부를 묻고 그러한 관계에 참을 부여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관계와 실재 간의 대응 여부에 대해 재차 물을 수 있으며, 결국 그러한 무수한 대응 관계 속에서 무한 퇴행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관념이 실재에 대응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관념을 참이라거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sup>62)</sup>

한편 우리가 물리적 대상에 관한 사고내용을 감각 인상의 도움으로 재차 참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감각 인상과 관련된 관념이 참이라서 사고내용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내용을 참이라고 판단할 때 감각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은 우리 각자의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며, 논리학에서 사고내용은 인식 주체에 존재-독립적이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참이거나 거짓이다. 사고내용은 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상상을 통해 관념을 창조하듯 심적 작용을 통해 사고내용을 산출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고내용을 참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인 것은 아니며, 만일 그것 자체가 참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참일 수 없다. 사고내용 자체는 감각을 통해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지각가능한 문장이

61) Frege, G. (2016). XXI.

62) Frege, G. (1979). 126, 128-129; Frege, G. (1997). 326-327.

진리치를 할당받게 되지만, 정확히 말해 진리치는 문장이 아닌 사고내용에 할당되는 것이며, 문장은 사고내용의 표현일 때에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왜냐하면 참인 문장이 다른 언어의 문장으로 정확히 번역될 경우 그것의 뜻인 사고내용은 물론 그것의 참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장의 뜻이 다를 경우 그것의 진리치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sup>63)</sup>

프레게는, 천문학이 행성의 관념이 아닌 행성 자체를 연구하듯, 논리학이 사고내용 자체와 그것의 진리치 여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 여겼으며, 심리학 적 고려들이 논리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대 심리주의자들의 논리적 작업이 부질없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관념이 궁극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 관념이라면, 관념은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칙인 사고내용에 의존하는 논리학과 무관하거나 논리적으로 부차적인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sup>64)</sup> 논리학에서 감각 지각을 통해 형성된 관념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직 감각의 매개 없이 이성에게 직접 주어지는 대상들에만 관여하게 된다.<sup>65)</sup> 논리학과 심리학 사이에는 진리와 관련된 참여한 구분이 존재한다. 심리학자가 여타의 과학자들처럼 진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논리학자는 참 자체와 그것의 내용을 펼친 논리법칙을 연구하는 과업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심리학이 심적 현상에 관한 참인 사고내용, 즉 진리에 도달하는 활동이라면, 논리학은 진리에 도달하는 모든 학문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sup>66)</sup> 프레게는 현대 논리학의 창시자로서 새로운 논리학의 기호 언어가 학문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주요한 장점으로 꼽았다. 그의 개념표기법은 학문적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그

63) Frege, G. (1979). 3, 129, 131-132, 174, 198; Frege, G. (1997). 156, 327-328, 342-343, 363.

64) Frege, G. (2016). XXIV; Daston, L. & Galison, P. (2007). Objectivity. New York: Zone Books, 270.

65) Frege, G. (1960). x vii, 115; Frege, G. (1979). 6, 142, 149.

66) Frege, G. (1979). 3, 5; Cohen, J. (1998). Frege and Psychologism. Philosophical Papers. 27(1), 48.

것의 추론 규칙은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므로 학문적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한다.<sup>67)</sup> 따라서 프레게의 주장처럼 논리학의 탐구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면, 논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과가 아니다. 오히려 논리 언어가 심리학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할 수 있고 심리학 이론의 타당성이 논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보편학의 지위는 마땅히 심리학이 아닌 논리학에 주어져야 한다.

## 2. 학문의 정립

사고내용의 객관성 논제는 프레게의 심리주의 비판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며, 그의 객관성 개념 중 하나는 사고내용에 대한 공적 이해와 상호주관적 일치라는 구상에 의존한다.<sup>68)</sup> 이러한 객관성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프레게의 학문 개념이다. 그는 심리주의가 학문 자체에 커다란 위협이라 여겨 참과 객관성을 모든 학문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주관적 관념의 개입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관념의 전달불가능성과 공유불가능성이 어떻게 학문의 정립을 불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이고자 했다.

프레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비록 두 인식 주체가 동일한 대상을 관찰하더라도, 그들은 서로 다른 망막 이미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의식 세계에 속한 감각 인상들을 조합하여 각기 다른 관념을 형성하고 소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 각자가 자신의 관념마다 특유한 것을 사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자체도 어렵다. 왜냐하면 관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한 변하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

67) Frege, G. (1972). 105-106; Frege, G. (1979). 27, 46.

68) 프레게의 또 다른 객관성 개념은 심리적인 것을 인식 주체의 내부에, 그리고 논리적인 것을 인식 주체의 외부에 위치시킨다. Frege, G. (1960). 34-35;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45.

런 일은 명백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관념을 공적으로 표현할 방법도 없지만, 설령 관념이 전달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관념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하나의 의식에 합쳐 비교해보아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나아가 설령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념들의 유사성 판단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유사성 정도가 크든 적든 결국 그것들은 단지 “서로 다른 관념들”일 뿐이다.<sup>69)</sup>

프레게는 논리적 심리주의가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진리에 대해 해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동일한 내용으로 수용가능한 참인 사고내용, 즉 진리와 그것에 덧붙여지는 관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적인 문장의 객관적인 뜻과 개개인의 마음의 일부인 주관적인 관념은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장을 통해 사고내용에 진리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산출하기 때문에, 진리치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여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한다.<sup>70)</sup> 그런데 만일 동일한 문장에 대해 각자가 파악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만일 두 판단 주체가 동일한 문장을 각자의 의식 영역에만 적용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내용밖에 가질 수 없다면, 그것들의 참과 거짓도 그런 사적인 영역에 제한될 것이다. 그럴 경우 누군가가 파악한 내용은 참인 반면 다른 누군가가 파악한 내용은 거짓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내용 자체의 진리치에 대해 논할 수 없을 것이다.<sup>71)</sup> 이렇게 누군가가 문장을 통해 파악하거나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단지 사적인 의식적 내용일 뿐이라면, 그것은 타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관한 논쟁도 공허하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통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고내용을 표현하지 않고

69) Frege, G. (1960). 53; Frege, G. (1979). 3-4; Frege, G. (1984). 198, 209; Frege, G. (1997). 155, 343.

70) 논리학에서는 주장문의 뜻이 참이거나 거짓이며, 진리치 할당 이후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고내용을 가지게 된다. Frege, G. (1979). 129.

71) Frege, G. (1979). 134; Frege, G. (1997). 154, 159.

각자의 서로 다른 내용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파악된 내용들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하여 싸울 수 있는 어떠한 공통의 근거나 기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나 항상 상대방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과 정반대의 믿음을 꽤나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진리는 각자의 관점에서 이해된 상대적인 것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무관한 것이 되어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사고내용의 총체인 자신만의 학문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의견의 대립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논리학도 사라질 것이다. 결국 논리적 심리주의자의 주장처럼 사람들이 문장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관념 중 하나를 지시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세계에 관한 심리학적 탐구 방식은 정당화될지 모르지만, 모든 학문은 미신에 불과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구할 수 있는 가설이나 이론에 대한 공동 연구는 물론, 학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sup>72)</sup>

프레게가 관념과 사고내용을 구분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사고내용이 소통불가능하다는 일반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학문이 존재한다. 사고내용과 관념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임의적이며 관습적일 뿐이며, 비록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데 심리적인 요소나 관념이 불가피하게 동반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고내용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관념’이라는 용어를 부적절한 것을 배제하는 데 사용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인 학문들에 사용해선 안 된다. 가령 우리가 ‘ $2+3=5$ ’이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표현한 문장을 사용할 경우, 누구나 그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각자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파악하거나 재인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나 정당화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의 참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그것을 공유하는 인식 주체라면 누구나 얼마든지 그것을 문장을 통해

72) Frege, G. (1979). 127, 133, 144-145; Frege, G. (1980). 80; Frege, G. (1997). 206, 335-336.

다시 구현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sup>73)</sup> 이렇게 사고내용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동일하고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같은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들 각자의 내부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바깥에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고내용은 누군가의 이해 여부와 무관하고 마음-독립적이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혹여 동일한 문장을 두고 우리가 서로 다르게 내용을 파악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장의 객관적인 뜻인 사고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차이를 기록하여 누가 옳은지에 대한 논쟁과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학문적 사실을 보고할 때, 우리의 관념과 전혀 무관한 객관적 사고내용을 주장하게 되며, 이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사고내용과 “유사한 무언가”가 아닌 “바로 그 사고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게 된다. 나아가 우리는 얼마든지 인식적으로 공적인 사고내용을 함께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관한 공적 소통과 지적이고 풍부한 논쟁을 통해 정당한 학문들을 정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왔다.<sup>74)</sup>

최종적으로 프레게는 객관적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심리주의자들의 거부와 물리적 실재 이외에는 객관적인 것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결국 회의주의적 유아론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이려 했다. 논리적 심리주의는 논리학을 심리학으로 환원하여 두 영역들의 구분을 없애고자 했기 때문에 주관적 관념과 객관적 사고내용의 경계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직접적 인식 대상이 주관적 관념밖에 없다는 주관적 관념론의 근본 논제에 도달했다. 그것은 사고내용을 어떻게든 심리학의 영역에 용해시키려 했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물리적 대상과 사건에도 적용하는 커다란 우를 범하게 되며, 물리적 실재들 역시 우리의 각자의 주관적 영역에 용해되어 결국 주관적 관념론을 완성했다.<sup>75)</sup>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주관적 관념론이 회의주의적 유아론

73) Frege, G. (1960). 35, 71; Frege, G. (1979). 4, 127, 137; Frege, G. (1984). 135, 198; Frege, G. (1997). 155, 341.

74) Frege, G. (1960). 34, 37, n.1; Frege, G. (1979). 3-4, 7, 133, 137, 148, 198; Frege, G. (1997). 154, 156, n.E, 205, 335; 우리는 단지 파악된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정당화를 알고 싶은 뿐이다. Frege, G. (1979). 5.

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프레게는 이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학문적 대상과 의미를 오로지 관념으로 환원시키는 극단적인 관념화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물리적 대상과 관련해 초월적 실재를 운운했는지라도, 그들은 그것조차 관념이라는 최상위 유에 포섭시키며 정작 그런 독립적 실재의 존재 여부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학과 수학이 개별 주체들의 의식적 내용과 독립적인, 그리고 수많은 사고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자신의 소유물과 그렇지 않은 것,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거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여 외부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회의주의를 초래한다.<sup>76)</sup> 그들은 하나의 마음을 다른 마음들로부터 차단시키는 인식적인 접근불가능성을 통해 각각의 인식 주체를 자신의 경험 세계에 갇힌 사적인 자아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의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각자의 내부 세계를 향하게 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모든 통로는 봉쇄하는 방식으로 유아론을 초래한다.<sup>77)</sup>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관적 관념을 인식의 유일한 대상으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상대주의적 진리 개념을 가지게 하며, 결국 공적 언어는 사라지고 사적 언어만 남게 하여 학문적 담론

75) 프레게에 따르면, 에르트만은 분명 실재의 범주를 관념의 범주와 뒤섞어버리는 논리적 심리주의자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재가 관념과 독립적인 초월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실재론에 매달리지만, 이것은 속임수이며 그는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실재론적 설명이 어떻게 판단의 주어와 술어가 모두 관념이라는 자신의 일반적 견해와 부합하는지 해명하지 못한다. Kusch, M. (1995). *Psycholog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5-36.

76) Frege, G. (1984). 197; Frege, G. (2016). XIX-XX; 프레게가 심리주의의 철학적 원흉이라 여긴 주관적 관념론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것이었다. Porta, M. A. G. (2015). *The Evolution of Frege's Critique of Psychologism and the Brentano School*. *Filosofia Unisinos*. 16(3), 202.

77) Frege, G. (1979). 143-144; Frege, G. (1997). 337-338; Daston, L. & Galison, P. (2007). *Objectivity*. New York: Zone Books, 45.



을 불가능하게 한다.<sup>78)</sup>

## V. 결론

프레게는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논리학과 기호 언어를 바탕으로 현대철학의 분석적 전통을 정립한 선구자이다. 프레게 철학의 권위자인 더밋은 프레게를 근대 철학의 인식론적 주제에서 의미론적 주제로 철학의 주요 관심사를 전환시킨 분석철학의 창시자라고 평가했으며, 그가 인식론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관심만을 보였다고 주장했다.<sup>79)</sup> 더밋의 이러한 주장과 평가는 프레게가 자신의 논리학을 사고내용의 철학으로 간주하며 한편으로 사고내용에 대한 의미론적인 분석에 매진한 것을 볼 때 일견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레게의 철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철학적 관심사의 전환보다는 오히려 주관적 관념론에 대한 그의 맹렬한 인식론적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 분석철학은 프레게가 지녔던 논리학에 관한 반심리주의적 이해와 태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80)</sup> 따라서 프레게가 인식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논리적 심리주의와의 전쟁을 고려할 때, 그가 인식론적 문제를 경시했다거나 지식 이론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더밋의 주장은 다소 과도한 주장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 볼 때, 우리는 프레게를 현대철학의 태동기에 객관

78) Frege, G. (1997). 340-341.

79) Dummett, M.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667-669; Dummett, M. (1993).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4-14.

80) 라일은 『철학의 혁명』 서문에서 분석철학의 기원 중 하나가 반심리주의라고 선언했다. 그에 따르면 분석철학의 시조인 프레게와 당대의 절대적 관념론자인 브래들리는 흄의 유산을 계승한 밀의 심리주의에 반대한다는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철학자들은 더 이상 심리학의 재료인 관념들, 즉 사적이고 순간적인 이미지들과 인상들에 대해 탐구하지 않게 되었다. Ayer, A. J. (1956). The Revolution in Philosophy. New York: Macmillan, 6-8.

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철학자라 평가할 수 있다. 프레게의 반심리주의는 철학자가 지녀야 할 입장과 태도를 대변하는 하나의 이념이라 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조잡하고 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견해들의 추방을 명령하는 하나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논리적 심리주의를 강력한 주관주의의 귀결로서 논리적 질서의 본성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따라서 무수한 논리적 혼동들을 야기하고 논리학의 객관성을 파괴한 학문적 망령이라 믿었다. 그리고 이 망령을 출몰하게 한 주관적 관념론을 학문의 존립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사악한 원흉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그의 목표는 논리학자가 심리학적 논리학을 던져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보편학으로서의 논리학을 정립하여 논리학의 선형학으로서의 지위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sup>81)</sup> 이를 위해 그는 개인의 의식적 내용과 객관적인 사고내용의 철저한 구분을 통해 심리학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논리학의 객관성을 수호하고자 했으며, 존립 위기에 처한 학문을 구해내고자 했다. 그는 논리학자들이 심리주의를 극복한다면 논리학에서 관념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 공언하며, 결국 논리적 심리주의가 논리학의 객관성으로 인해 실패할 운명에 처한 위태로운 사조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sup>82)</sup>

**【주제어】** 논리학, 반심리주의, 논리적 심리주의, 주관적 관념, 객관적 사고내용

81) Frege, G. (1997). 207-208.

82) Frege, G. (1984). 208; Frege, G. (2016). XXIII.

[참고문헌]

- Aach, J. (1990). Psychologism Reconsidered. *Synthese*. 85(2).
- Adamson, R. (2017). *A Short History of Logic*. ed. W. R. Sorley. Forgotten Books.
- Ayer, A. J. (1956). *The Revolution in Philosophy*. New York: Macmillan.
- Baker, G. P. & Hacker, P. M. S. (1984). *Frege: Logical Excavation*. Oxford: Basil Blackwell.
- Brockhaus, R. R. (1991). Realism and Psychologism in 19th Century Logic.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1(3).
- Coffa, J. A. (1991). *The Semantic Tradition from Kant to Carnap*. ed. L. Wess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J. (1998). Frege and Psychologism. *Philosophical Papers*. 27(1).
- Cottingham, J. (1993). *A Descartes Dictionary*. Oxford: Blackwell.
- Daston, L. & Galison, P. (2007). *Objectivity*. New York: Zone Books.
- Dummett, M.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1993).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ge, G. (1960).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 J. L. Austin. Oxford: Blackwell.
- (1972). *Conceptual Notation and related articles*. tr. T. W. Bynum. OUP.
- (1979). *Posthumous Writings*. tr. P. Long & R. White. Oxford: Blackwell.
- (1980). *Philosophical and Mathematical Correspondence*. tr. H. Kaal. Oxford: Blackwell.
- (1984).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tr. M. Black. Oxford: Basil Blackwell.
- (1997). *The Frege Reader*. ed. M. Beaney. Oxford: Blackwell.
- (2016). *The Basic Laws of Arithmetic*. tr. P. A. Ebert, M. Rossberg & C. W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ravaso, P. & Vassallo, N. (2015). *Frege on Thinking and Its Epistemic Significance*. London: Lexington Books.
- Godden, D. M. & Griffin, N. (2009). Psychologism and the Development of Russell's Account of Propositions. *History and Philosophy of Logic*. 30(2).
- Jacquette, D. (2003). *Philosophy, Psychology, and Psychologism*. Kluwer Academic Publisher.

- Kusch, M. (1995). *Psycholog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2020). *Psycholog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sychologism>
- Locke, J. (1975).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d. P. H. Nidditch. Oxford: Clarendon Press.
- Mill, J. S. (2011). *A System of Logic*. <https://www.gutenberg.org/ebooks/35421>.
- (1889). *An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London: Longmans and Co.
- Notturmo, M. A. (1989). *Perspectives on Psychologism*. Leiden: E. J. Brill.
- Moran, D. (2000).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elletier, F. J., Elio, R & Hanson, P. (2008). Is Logic All in Our Heads? From Naturalism To Psychologism. *Studia Logica*. 88(1).
- Picardi, E. (1998). Sigwart, Husserl and Frege, on Truth and Logic, or Is Psychologism Still a Threat?.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5(2).
- Porta, M. A. G. (2015). The Evolution of Frege's Critique of Psychologism and the Brentano School. *Filosofia Unisinos*. 16(3).
- (2017). The Critique of Psychologism and the Conception of Subjectivity in Frege. *CR: The New Centennial Review*. 17(2).
- Schim, M. (1996). *Frege: Importance and Legacy*. New York: de Gruyter.
- Sluga, H. D. (1980). *Gottlob Fre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국문초록]

본고는 프레게의 반심리주의가 겨냥한 주요 표적과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연구한 것이다. 프레게는 당대에 유행한 논리적 심리주의를 비판하며 논리학의 객관성을 고수하고자 했다. 그는 논리적 심리주의의 철학적 기원이 다양한 심리주의적 주장들을 제시하며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심리주의의 인식론적 토대를 제공한 영국 경험론의 전통이라고 확신했다. 주관적 관념론은 우리의 유일한 인식 대상이 주관적 관념뿐이라는 주장과 직결되며, 이러한 주장은 철학자들이 논리학과 심리학을 혼동하게 한 논리적 심리주의의 근본 논제이다. 따라서 프레게는 논리적 심리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의식적 내용에 불과한 주관적 관념과 공유가능한 학문적 내용인 객관적 사고내용을 철저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으며, 논리학의 본성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관념’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논리학의 중요한 특징들과 구분들을 제시했으며 내용의 구분을 통해 관념의 주관성을 억압하고 사고내용의 객관성을 강조할 때 학문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철학자들이 논리적 심리주의에 오염된다면, 이에 따라 진리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이나 회의주의적 유아론을 수용하게 되어 결국 학문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Abstract]

## A Study on Frege's Anti-psychologism - On a Criticism of Logical Psychologism

Kang, Gue-ho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main target and core contents of Frege's anti-psychologism. Frege strived to hold the objectivity of logic, and criticized logical psychologism that prevailed at that time. He was convinced that the philosophical origin of logical psychologism was a tradition of British empiricism that had suggested various psychologistic opinions and provided a epistemological foundation of subjective idealism for it. Subjective idealism is directly concerned with an assertion that the only immediate object of knowledge is a subjective idea, and this is a fundamental thesis of logical psychologism that leads philosophers to confuse logic and psychology. Thus, Frege demanded to separate sharply objective thoughts that were sharable contents of science from subjective ideas that were contents of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banned the indiscriminate use of 'idea' to prevent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logic. In this regard, he presented important features and separations of logic, emphasized that we could establish sciences when the subjectivity of ideas was suppressed, and stressed the objectivity of thoughts by separating out different contents. Finally, he criticized logical psychologism that if philosophers became contaminated with it and thus didn't set the objectivity of thought aside, they would accept a relativist view of truth or skeptical solipsism, and eventually cause a great crisis of science.

**[Keywords]** Logic, Anti-psychologism, Logical Psychologism, Subjective Idea, Objective Thought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14일 / 논문심사일: 2022년 12월 08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2일

**[저자연락처]** [tosilence@naver.com](mailto:tosilence@naver.com)